

## 8/9(월) 다니엘 묵상 50

### 다니엘 11:36-3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36-39절로서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40-45절은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부분(36-39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36-39절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대로 안티오쿠스 4 세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모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금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했습니다. 먼저, 안티오쿠스 4 세의 거만함이 36-37 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36-37 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티오쿠스 4 세의 교만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크다 여기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 그것도 모든 신들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 세는 그의 이름에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을 붙였는데 이는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뜻으로 ‘신의 현신 또는 현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헬라의 가장 높은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 신이 그에게 현현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제우스(Zeus)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 중에 지상과 하늘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Jupiter)’로 불리우고 영어식으로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태양계에서 목성을 뜻하는데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것처럼 제우스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 세가 예루살렘 성전이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게 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티오쿠스 4 세는 강력한 군사력과 뇌물을 좋아했습니다(38-39 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이 구절에서 안티오쿠스 4 세가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신을 제우스의 현현으로 믿고 있던 그가 그보다 못한 신을 의지했다기 보다는 다른 신들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을 신봉하는 자들과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마카비하 4:7-8 절에 보면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안티오쿠스 4 세에게 뇌물을 바쳐서 형의 직분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마카비하 4:7-8, “**셀류코스가 죽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가 그 왕위를 계승했을 때에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부정한 수단으로 대사제직을 손에 넣었다. 야손은 왕을 알현하고 은 삼백 육십 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팔십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마카비하 4:24 절에서도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기도 했습니다(마카비하 4:24,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꾸며 야손보다 은 삼백 달란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외경을 보면,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와 절기를 금지시켰고 그 뿐 아니라 번제 제사와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들을 닦치는 대로 불태우고 또 부정한 제물을 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돼지를 잡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먹도록 강요까지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여기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교만과 사악함을 뛰어 넘어서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행위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예언은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의 행위로 끝난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서 11 장이 이미 종결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주후 1-2 세기에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니엘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언급한대로 단지 과거의 예언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아직 사라지거나 영벌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지만 특히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우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온갖 공격과 시험에도 미리 대비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햄튼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IRIS(난민선교) 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